

한국 전통 주머니의 Folding 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uctural Design of the Korean Traditional Pocket Folding

주 저 자 : 유장미 (Yu, Jang Mi)

(주)수현문화

rosecap@hanmail.net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lding technique and the structural aspect of the Korean traditional pouch, and analyzed the traditional craft using the fold technique such as Korean traditional pouch. The function of folding and unfolding in a composition method was confirmed not only in traditional pockets but also in [Fan] and [Galmo]. We could see that the fold method was implemented c of [Fan], [Galmo], [Pocket], but it could be found in the folding direction, method and regular wrinkle shape. It i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at modern aesthetic elements can be found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 the past, and concrete modern aesthetic verification study will be the subject of the next article.

Keyword

Pouch, Crease, Fold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주머니의 형태가 완성되는 구조적 측면 즉, Fold기법과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한국 전통주머니와 같은 Fold기법을 활용한 전통공예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구성적인 방법으로 접었다 펼쳤다하는 기능은 전통 주머니에서 뿐만 아니라 [부채], [갈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Fold기법의 구현방법은 [부채], [갈모], [주머니]에서 한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접는 방향과 방법, 규칙적인 주름의 형태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과거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현대 미학적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결론이며 구체적인 현대 미학적 검증연구는 다음 논문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대상의 범위와 방법
- 1-3 연구내용

2. 이론적 고찰

- 2-1. 부채의 이론적 고찰
- 2-2. 갈모의 이론적 고찰

3. 한국 전통주머니의 이론적고찰

- 3-1. 전통주머니의 구조
- 3-2. 구조별 분류
- 3-3. 용도별 분류

3-4 전개별 분류

3-5 형태별 분류

4. Fold 기법의 정의

5. 전통공예의 Fold구조

- 5-1. 전통주머니의 Fold구조
- 5-2. 전통공예의 Fold구조 비교

6. 결론

참고문헌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 공예는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던 것으로서, 의(依), 식(食), 주(住)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도구이자 용구로서의 예술이 아닌 생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은 '전(傳)하여 이어지는(統)' 것으로 반드시 현재에 이어지는 것이어야만 한다. 전통의 한쪽 끝은 역사로부터 전해져 오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끝은 현재의 삶에 이어져 있어야만 한다.¹⁾

문화 흐름에 따른 생활 변화로 우리 전통공예는 그 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사장되는 위기에 있었지만, 근간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우리 것을 이어가는 연구들이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가치관의 확립을 통해 한국 문화의 뿌리를 되찾고 한국의 특성이 담긴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인의 기호에 맞게 전통을 재창조하는 현상이 가속화 됨에 따라 한국과 외국의 문화를 결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전통문화를 상품에 담아 제품화 하는 글로벌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우리문화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정신적 바탕이므로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전통문화의 특징과 개성, 아름다움을 재조명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껏 한국전통주머니의 연구는 다양하게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전통주머니의 외형적 형태나 문양에 대한 연구로만 치중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주머니의 형태가 완성되는 구조적 측면 즉, Fold기법과의 연관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한국 전통주머니와 같은 Fold기법을 활용한 전통공예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의 하나인 접선(摺扇)과 전통 쓰개의 하나인 갈모에서 관찰되는 Fold기법을 전통 주머니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기존의 가치를 더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1-2. 연구대상의 범위와 방법

연구 대상은 조선시대 전통 주머니에서와 같은 Fold기법으로 보이는 두 부류를 선정하여 범위를 두었다.

한국 전통주머니와 같은 Fold기법을 활용한 전통공

예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채의 하나인 접선(摺扇)과 전통 관모의 하나인 갈모를 연구대상으로 보았다. 접선(摺扇)의 Fold기법은 부채살과 단죽을 결합하여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주머니 입구의 Fold기법과 유형이 같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갈모는 접으면 철부채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두루주머니와 귀주머니의 Fold기법과 같다고 보아 조선시대 생활사에서 보이는 두 부류에 범위를 두었다.

본 연구는 참고 문헌을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전통주머니의 정의, 범주 및 용어를 고찰하고 Fold기법을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전통주머니의 접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부채와 갈모의 정의를 살펴보고 각각의 분류에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형태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1-3.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첫째, 전통 부채의 정의와 그 종류를 살펴보고 전통주머니의 Fold기법과 같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摺扇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둘째, 전통 관모류의 하나인 갈모의 정의와 Fold기법을 고찰해 보았다. 셋째, 전통 주머니의 종류와 형태를 알아보고 주머니 Fold기법의 형태별 분류를 해 보았다. 넷째, Fold기법의 정의와 그 기법을 고찰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부채의 이론적 고찰

2-1-1 부채의 정의

부채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사용하였던 도구들 중 하나였다. 순수한 우리말인 부채는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의 '부'자와 가는 대나무 또는 도구라는 뜻인 '채'라는 뜻이다²⁾

또한, 한문으로는 '선(扇)'이라고 하는데 집이나 문을 뜻하는 호(戶)자에 날개를 뜻하는 '깃 우(羽)'를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부채 선(扇)'자이다. 이는 하늘을 나는 날개가 아니고 집안에 있는 날개라는 뜻이기도

1) 최범, 한국적 디자인 또는 복고주의 비판, 월간 디자인 200호, 1995, p.183

2) 송정은, 韓·日부채의 비교분석을 통한 무용예술의 형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6, p5

하고, 날개로 엮은 문짝이란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종이나 비단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새의 깃털로 부채를 만들었음을 통해 확인된다. 고분 벽화나 문헌에 깃털로 만든 부채의 형상이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³⁾

인간이 부채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였을 것이다. 그러나 부채의 기원에 대한 기록으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나타나 있는 문헌은 없다.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최초의 부채는 커다란 나뭇잎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 깃털(羽)을 이용하고, 종이와 작목이 발명되면서 그것을 재료로 이용하여 자루에 단단하게 연결함으로써 좀더 견실한 부채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에 접었다 폄다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접는 부채를 만들게 되었다⁴⁾.

부채의 종류는 많지만 크게 단선(團扇)과 접선(摺扇)으로 나뉜다. 단선은 부채살이 손잡이 중심에서부터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그 모습이 이른 아침 햇살이 선지의 일개우는 형상을 지녔다. 단선의 부채살은 자루 부분에서 모아지는데, 위 부분은 얇고 자루 박는 부분은 튼튼해야 바람이 잘 난다. 공기의 저항을 이겨내고 바람을 일으키는 단선의 특성상 손잡이 부분이 튼튼해야 한다.

접선은 부채살에 종이 또는 김(비단)을 붙여 접었다 폄다 할 수 있도록 만든 부채를 접선 혹은 접부 부채라고 하며, 옛 선비들이 외출 시 의관을 갖추고 손에 합죽선을 쥐어야 비로소 외출했을 정도로 계절에 상관 없이 손에 들고 다녔기 때문에 ‘쥬부채’라고도 부른다.

합죽선은 견고하고 모양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며, 손에 꼭 맞아야 한다. 모양새는 한복을 여미어 입은 단아한 여성의 모습을 띠고, 옆모습을 봤을 때 머리 모양이 크고 둥그스름해야 손에 걸림새가 없다. 또한 목 부분에서 가늘어져 손에 쏙 들어와야 하며, 목살 부분에서 다시 커지는 형태가 손에 가장 잘 맞는 형태이다⁵⁾.

부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崔豹의 『古今註』에 나타나 있다. 그 기록에는 舜임금이 神位를 받아 임금이 된 후 賢人을 求하여 견문을 넓히고자 五明扇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 漢나라와 唐나라 때에는 착한 사람을 推擧하여 부채를 기념물로도 사용하였다고 한다⁶⁾.

한편, 高丞의 『事物紀原』에도 黃帝內傳에 五明扇의 기록이 있으나, 五明이라고 하는 意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招涼扇은 周나라 武王이 만든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서 서양학자들은 중국 周나라 부채의 순수한 우리말은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의 ‘부’자와 가는 대나무 또는 도구라는 뜻인 ‘채’자가 어우러져 이루어진 말로서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키는 채’라는 뜻이다.

2-1-2. 부채의 분류

전통 부채는 깃털로 만든 羽扇, 자루가 달린 둥근부채인 團扇, 접었다 폄다 할 수 있는 摺扇, 그리고, 모양이나 용도가 다른 別扇 등 크게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羽扇은 황해도 다호리 고분에서 발굴되었으며 깃털 부채의 자루는 고구려의 안악 3호분 고분 벽화의 주인공 공이 들고 있었다. 이 부채는 예부터 세력있는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였고, 또한 귀한 사치품이기도 하였다. 깃털부채는 깃털의 화려한 모습만큼 부채자루의 조각에도 세심하게 신경 쓴 것이 많다. 團扇은 우리말로 團扇이라고도 하며 방구부채라고 한다. 방구란 둥글다는 뜻으로 고대부터 사용되었다. 이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하게 전개된 것이다. 청동기 시대의 청동 거울에도 둥근 모양의 扇形銅鏡과, 조선시대의 團扇形 열쇠패도 있어, 부채의 원조는 단선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땃살에 변화를 준 曲頭扇이 있으며, 넓적한 부채살 5,6개를 오리발처럼 엮어서 길쭉하게 만든 드림부채가 있다. 그 밖에 대살을 엮어 만든 竹席부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한지를 꼬아서 엮어 만든 紙繩부채가 있다.

摺扇부채는 부채살과 부채 가장자리의 갓대, 즉 단축을 결합하여 접었다 폄다 할 수 있게 만든 부채이다.



[그림 1]
한국학중앙연구원 접선



[그림 2]
전주한지박물관 접선

후대가 간편하여 쥬 부채라고도 한다. 방구부채를 서민적이라고도 하는 데 반해 접부채는 귀족적이다. 실

3) 금복현, 전통부채, 대원사, 2006

4) 송정은, 韓·日부채의 비교분석을 통한 무용예술의 형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6,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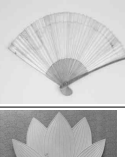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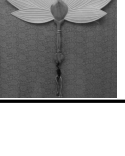
5) LI XIN, 한국 부채임춤의 본질과 실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2016, p14,15

6) 송정은, 韓·日부채의 비교분석을 통한 무용예술의 형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6, p4

제로 접부채는 높은 신분을 상징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벼슬을 하고 있는 양반만이 지닐 수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여자도 접부채를 사용했는데, 부채에 들어는 사치 때문에 태종 때는 부녀자의 외출시 접부채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 시킨적도 있었다.

접부채는 부채살의 수가 많고, 부채의 크기가 클수록 좋은 것으로 여긴다. 부채 끝의 모양, 변죽에 사용한 대의 종류, 장식 등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다. 가장 널리 알려진 접부채로는 삼죽(扇)이 있다. 이 부채는 변죽과 부채살 모두 겉대를 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합죽선이라고 하며, 변죽과 부채살의 앞뒷면을 얇은 皮竹로 섬세하게 붙여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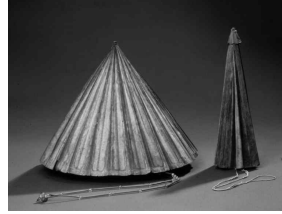
[표 1] 부채의 분류

종류	형태	내용	사용대상
우선(羽扇)		깃털로 만든 부채	주로 남자가 사용
단선(團扇)		자루가 달린 둥근 모양의 방구 부채	주로 부녀자들이 사용
접선(摺扇)		접었다 할 수 있는 부채	남자들이 외출할 때 사용
별선(別扇)		특별한 용도로 모양이나 재료를 다르게 하여 만든 부채	특별한 용도로 사용자 다양

2-2. 갈모의 이론적 고찰

갈모는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여 쓰는 우장(雨裝)의 하나이다. 접으면 칠부채 모양이 되고 펼치면 원뿔형으로 되어 있어 빗물이 밑으로 잘 흘러내린다. 원래 명칭은 입모(笠帽)이며 또한 우모(雨帽)라고도 하였다.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 초기부터 갓을 쓰기 시작했고, 선조 때 이제신이 쓴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鯁鱗瑣語)』에는 명종(明宗) 때를 전후한 입제(笠制)의 설명 중에 우모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 중기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⁷⁾ 만들 때는 부채살같이 잘게 참 대살을 조립

한 위에 한지(漢紙)를 배접하여, 그 위에 들깨기름이나 콩기름을 바르고 양쪽 안에 끈을 달아매게 되어 있다.⁸⁾



[그림 3] 한국학중앙연구원 갈모

3. 한국 전통주머니의 이론적 고찰

한국의 전통복식에는 주머니가 달려있지 않았으므로 삼국시대부터 허리춤이나 가슴부근에 돈이나 소지품을 넣고 다녔다. 그러나 주머니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경덕왕조(景德王條) 편에 경덕왕의 아들 해공왕이 돌때부터 즉위하기까지 비단 주머니 차기를 즐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미 신라시대부터 착용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주머니는 궁중에서 정초 문안 때 왕과 왕비, 왕대비가 대신과 그 가족들에게 일 년 내내 평안을 위해서 하사품으로 내렸다. 궁중용 주머니는 수방상궁의 솜씨가 돋보이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궁중에서 내려진 주머니는 품격 있는 장식으로 여겨 자랑스럽게 차고 다녔으며 1930년까지 창덕궁, 안동별궁, 침방과 수방에서 나인들에 의해만 들어졌다고 한다. 조선시대 동국세시기를 보면 새해 첫 돼지날과 쥐날 주머니에 붉은 콩 세알을 넣어 대신들에게 하사하였는데 이것은 농사에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에게는 액을 물리치고 일 년 내내 건강하게 지내라는 뜻이 겹쳐 있다. 주머니는 일반적으로 돈이나 소지품을 넣기 위하여 몸에 차고 다니거나 복식의 일부분으로 몸치레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우리 옷에는 서양문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주머니가 달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따로 만들어 차던 것이 후일에 장식품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⁹⁾

7) 양진숙, 조선시대관모사전, 2005, p. 華山文化

8) 최재영, 서양인이 본 조선末期 남성모자-강화도조약 체결에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1876~1910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2011, p. 76

9) 우리옷과 장신구. 열화당

이와같이 주머니는 필요성과 실용성뿐만 아니라 복식의 한 부분으로 장식성을 겸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주머니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일찍부터 발달되었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조선시대의 주머니는 후기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고(국, 사립 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기록으로는 주로 궁중 낭발기(囊撥記)등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에서는 또한 붉은 바탕에 수놓은 주머니를 평생에 세 개를 이어서 차게 되면 후세에 좋은 곳에 간다는 속신(俗信)이 있어서 노인들은 붉은색의 자수 주머니를 차는 것을 즐겼다. 그 이유는 수(繡)와 음(音)이 같은 수(壽)가 목숨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특히 어른들께 드리는 주머니에는 장생을 기원하기 위해 십장생무늬를 수놓았다. 돌이나 환갑 같은 잔치 때에도 주머니를 선물하는 것이 통례였고, 새댁이 첫 근친을 갔다가 시댁으로 돌아올 때는 ‘호도주머니’라 하여 손수 정성껏 지은 주머니를 시댁어른들께 드리는 것이 법도였다. 혼례 때에는 팔 아홉 알과 씨가 박힌 묵화 등을 넣은 두루주머니를 함(函)안에 넣었다. 이것은 자손이 번창하라는 뜻을 지닌 것으로 지방에 따라 주머니 안에 내용물의 차이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주머니는 돈이나 작은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형겅이나 가죽 따위로 만든 작은 자루 모양의 물건을 말하여, 주머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널리 썼는데 특히 우리 옷에는 서양문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주머니가 달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따로 만들어 차던 것이 후일에 장식품으로 발전한 것이다. 10) 복식에 물품을 지닐 주머니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전통 의상에서 전통주머니는 실용적 요소와 함께 장식적 요소도 중요시 되었으며, 우리 민족 고유의 미적 감각이 반영된 수공예품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었다.

문헌상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주머니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주머니의 대부분이 조선시대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용도에 따른 주머니의 기능이나 종류도 다양하다.

3-1. 전통주머니의 구조

전통주머니의 형태는 물건을 담는 기능을 하는 주머니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니 본체와 주머니의 입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주머니 입구, 복식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끈, 한층 멋스럽게 해주는 술, 매듭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 복식에 장식의 구조를 주체가 되는 부분과 그 에 더해진 부속 부위로 볼 수 있다.

11) 주체는 각종 재료의 공예 조형물을 말하는 것으로 주체의 형태나 재료에 따라 명칭이 결정된다. 종속물이라 함은 띠돈, 끈, 매듭, 술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주체를 보다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것을 말한다.¹²⁾

3-2. 구조별

전통 주머니를 분류하는 보편화된 기준 중 하나로 윤곽에 의한 형태상 분류이다. 이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둥근 모양의 두루주머니 형과 각진 귀주머니 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구조 분석을 위해 세분화하여 그 형태를 영낭형, 귀주머니형, 약주머니형, 직사각주머니 형으로 구분하였다.[표 1]

[표 2] 주머니의 분류

종류	형태	내용
두루주머니형		영낭은 해낭(亥囊)이라고 하며 흔히 쓰여진 주머니이다. 주름은 5,7,9,11개 등 홀수로 접지만 귀주머니 식으로도 접는다
귀주머니형		세 골로 접어 아래의 양쪽으로 귀가 나오게 된 주머니 양쪽 모서리 두 귀와 중앙부 아래쪽을 따라 감싸듯 한 겹이 덧대어져있다.
약주머니형		사선으로 접어 술기를 마주대고 꿰맨 후 삼각형의 뚜껑부분을 접은 형태
직사각주머니형		직사각형의 형태로 입구에 주름을 잡지 않고 끈만 꿰어 만든 형태

11) 금기숙 주선 복식 미술, 서울.1994 열화당,P147

12) 김세환, 한국노래개의 조형적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44 P194

① 두루주머니형

둥근형태의 염낭형은 아래쪽은 둥글고 중앙에 수를 놓거나 장식을 달고 위의 입구부위는 3.5.7.9.11씩 주름을 잡았다. 궁중에서 사용하는 염낭형은 주름의 숫자가 많다. 일명 亥囊(해낭), 夾囊(협낭)로 불리며 가장 보편적인 주머니이다.

② 귀주머니형

한자로 각낭(角囊)이라하고 궁중에선 줌치라 한다. 긴 네모 주머니 양편에 삼각형의 귀가 달린 모양의 각형 주머니이다. 양 옆으로 나온 귀를 연상하게 하는 모진 부분은 전체적 형태에 안정감을 제공하고 균형미를 이룬다. 또한 입구 주름의 어느 위치에 끈을 꿰느냐에 따라 귀의 각도와 주머니의 형이 달라진다. 제일 마찰이 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양쪽 모서리의 두 귀와 하단 밑 선에 한 겹을 덧대었다.

③ 약주머니형

약주머니형은 양옆 중앙에 주름을 잡아 끈을 꿰고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넘기면 삼각형 모양의 뚜껑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길게 접어 만든 필낭이나 수저집의 형태도 있다. 주름으로 인해 주머니의 형태는 직사각형에서 완만한 곡선의 어깨선으로 변형되어 부드러운 곡선 느낌의 직선 형태를 지니게 된다. 같은 방법의 필낭도 전해진다.

④ 직사각주머니형

직사각 주머니형은 주머니를 만들고 입구에 주름을 잡아 만든다. 직사각형 형태로 뚜껑이 있으며 입구에 주름을 잡지 않고 끈만 꿰어 만든 필낭이나 수저집, 비녀주머니의 형태에서 보인다. 약주머니 접는 것 처럼 만들기도 한다. 보자기와 주머니의 중간 형태로 버선본 주머니를 제외한 직선 형태의 주머니들은 두루주머니나 귀주머니에 비해 크기가 크다.

3-3. 용도별 분류

주머니는 담기는 물건의 이름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각종 향을 담은 향주머니, 환약을 담은 약주머니, 부적을 몸에 지니기 위한 부적 주머니, 부싷돌과 담배를 담아 둔 부시 주머니와 썸지, 군대를 동원하는 징표로 쓰이던 발병부(發兵符)를 넣던 병부 주머니, 붓을 보관하는 필낭(筆囊), 도장을 보관하는 도장주머니, 혼수(婚需)로 만들어 가던 은수저를 넣기 위한 수저 주머니, 가족들의 버선본을 넣어 두는 버선본 주머니, 돈을 넣는 돈 주머니 등 주머니의 쓰임새만큼이나 많은 주머니의 명칭이 있고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과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13)

[표 3] 용도별 분류

명칭	모양	용도	주름유무
향주머니		각종 향을 담음	유
약주머니		환약을 담음	유
부시,담배 썸지주머니		담배와 부싷돌을 담음	형태 다양 (귀주머니형태 많음)
병부주머니		군대 징표 담음	있음
버선본주머니		버선의 본을 담음	없음
수저주머니		돈을 담음	유, 무

3-4. 전개별 분류

전개별 분류는 주머니의 입구를 묶지 않은 상태로 펼친 모습에서의 분류이다. 주머니는 대체로 펼쳤을 때 물건을 넣고 입구에 주름을 접어 닫는다. 밑이 둥근형태의 전개로 주머니를 만들 경우 원형의 주머니모양이 완성된다. 사각형의 경우 대체로 양쪽 귀가 있는 귀주머니 형태가 되고 긴 직사각 형태태의 전개도에서 제작할 경우 귀주머니 형태로 접거나 위에서 접어 입구를 닫을 수 있게도 한다.

전통 주머니의 형태는 물건을 담는 본체인 주머니와

13) 이정자/홍나영 한국의 옛주머니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입구를 열어 물건을 넣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입구, 연결시키는 기능의 끈, 장식의 술이나 매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 복식에서 장신구의 구조를 주체가 되는 부분과 그에 더해진 부속 부위로 볼 수 있다.¹⁴⁾

[표 4] 전개도별 분류

구조형	전개도	결과물 형태
밑이 둥근형		
반원형		
사각형		
긴 직사각형		
뚜껑형		

3-5. 형태별 분류

형태는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조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여러 종류의 접는 선에 의해 형성된다. 형태를 의식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윤곽이고, 윤곽선은 그것이 애워 싸고 있는 면이나 공간의 모양을 제공해 준다. 전통주머니는 직선으로 구성된 귀주머니의 각진 형태, 주로 곡선으로 구성된 두루주머니의 둥근 형태, 이를 변형하여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운 구성으로 된 형태로 표현된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유물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외형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직선으로 구성된 각진 형태

하단부분이 양쪽으로 돌출되어 '귀'를 연상케 하는 형태와 긴 사각형의 천을 사선으로 접어 술기를 맞물려 접은 형태를 말한다.

② 곡선으로 구성된 형태

펼친 형태에서는 직사각 아래 둥근 반원형이지만 입구에 주름을 잡아 끈으로 조이면 타원형의 형태를 보인다.

③ 기타

직선과 곡선으로 들어나지 않는 곳에 달았던 것으로 가능성을 중시한 주머니이다.

[표 5] 형태 분석표

형태	직선				
종류	귀주머니	약낭	수저집	필낭	버선본주머니
모양					
형태	곡선		기타		
종류	두루주머니	사향낭	어깨주머니	기타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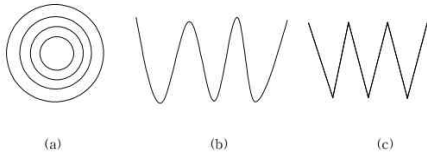
4. Fold기법의 정의

폴드(Fold)의 사전적 의미는 접다. 포개다, 주름, 층, 구김, 접은 자국, 움츠리다. 까다, 안다, 감싸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¹⁵⁾ 그러나 폴드는 여러 분야에서 사전적 의미보다 더욱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다. 폴드의 의미는 분리되어 있는 두 존재를 엮어주는 것이며, 두 요소들이 서로 얹히면서 변형되고, 생성하는 반응에 의해 유기적인 연속성의 원리를 기초하여 끊임없이 연결된 무한 중첩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즉 모든 사물의 본질 안에는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무한히 존재함을 의미하며, 주름을 펼치면 그 안에 또 주름이 무한히 있는 것으로 이러한 연속적인 주름은 서로 복잡하게 접히고 펼쳐진 생성 에너지를 의미한다. 폴드를 표현의 의미에서 보면 (그림4)의 (a),(b),(c) 모두 세상을 의미하지만 (a)의 경우는 포개져 있고 단절

14) 금기숙 석주선 복식 미술, 서울 1994.열화당,P147

15) e4u 영한사전, 시사

된 형상으로 우리말로 쟁여있다고 표현한다. 폴드 개념에서 표현하는 세계는 포개져 있으며 모두 연결되어 있는 형상인 (b),(c)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외부의 힘을 안으로 접어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폴드의 개념은 연속성을 내포하며 포개져 있는 연결로 설명할 수 있고, 복합적인 망에서 뒤얽힌 결합 상태를 말한다¹⁶⁾



[그림 4] Fold의 개념-쟁여있음과 주름잡혀있음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질 들뢰즈의 저서에서 차용된 개념으로 건축에서 폴드는 주름의 연속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연결된 무한 중첩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물 안에는 그것과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주름을 펼치면 그 안에 또 주름이 무한히 있는 것으로 이러한 연속적인 주름은 서로 복잡하게 접히고 펼쳐진 생성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폴딩 기법은 분할 가능한 실체로서 건축공간을 성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그 안에 힘을 내제시키고 있다. 이는 계속적인 차별화와 불연속성을 통해 스스로를 유지시키는 능동적인 힘을 말한다. 폴딩의 개념은 현대의 철학과 과학의 이론 등 여러 이론들을 접목시키는 미분자 생산의 동기(motive)로 새로운 형태 생성의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여러 이론의 통합, 결연을 통해 생성의 과정을 풀어나가고 있다. 모든 복잡성의 사고는 불확정성으로부터 설계의 사고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림 4. fold의 개념-쟁여있음과 주름 잡혀 있음 이것을 통해 다양한 건축의 유형과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데 폴딩 건축이 가지는 잠재성과 연속성은 건축에서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에 의한 생성 원리로 구조적인 측면과 형태를 규정짓는 조형성으로써 사고의 전환을 조정하고 있으며, 내부와 외부로 연결시키는 지속성은 사물과 환경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다. 즉, 존재 세계의 실체와 허구를 구별하는 내적 복수성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폴드의 개념을 통한 건축은 각 구성 요소들 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주변 맥락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건축이라는 범위 내에서 뿐만 아니

라 건축 외적인 부분들과의 관계에서 개별성보다는 전체성을 강조하는 구성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구성은 건축에서 제외 되었던 부분들을 건축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주며,이를 통해서 새로운 건축적인 맥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폴딩기법이 다양하게 응용되어 쓰이는 종이조형(paper folding)의 기법을 차용하여, 폴딩의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종이 조형은 현대 조형 예술의 독창적인 한 장르로 발전하고 있으며, 종이 조형의 재료로 쓰이는 종이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면서도 변형이 용이하고 색상이나 텍스처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평면성을 벗어나 2차원, 3차원적 예술로도 대담하게 표현할 수 있다.더불어 종이는 서로 상반된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 거칠다매끄럽다, 투명-불투명, 무광택-광택, 두껍다얇다, 가볍다-무겁다, 표면색이 차갑따뜻하다, 구겨지기 쉽다 구겨지기 어렵다 등의 상반된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이의 특성을 이용한 폴딩 기법은 작업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기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접기 (Folding)

종이를 자르거나 풀칠하지 않고 꺾기 또는 겹치기를 통해 조형형태를 만들어 내는 기법으로 모든 종이 조형 기법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기법이다. 접기 기법은 납작하게 겹쳐져서 부피의 증감없이 구조적인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이접기는 접는 방향과 방법, 접는 횟수에 따라 그 모양이 무수히 변화하는데 접기 기법 중에서도 평면접기, 부조 접기, 입체 접기 등으로도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은 Richard Sweeney의 2006년 작품 'Torus'에서 규칙적인 주름을 통해 부조형태의 입체를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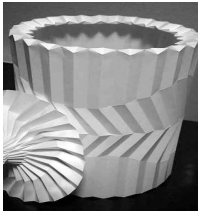
[그림 4] 접기 기법을 응용한 Richard Sweeney 작품

② 구부리기(Beanding)

종이에 힘을 가해 종이를 구부리는 기법으로 힘의

16) 이정우,접힘과 펼치짐:라이프니츠와 현대 2000,p105~p111요약

방향, 강도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구불구불한 곡선모양이 형성된다. 종이는 얇아서 간단히 구부러지나 손을 떼면 원래의 평면으로 돌아가는 탄성변형이 일어난다. 하지만 탄성변형에도 긴 시간에 걸쳐 힘을 가해서 변형시킬 경우, 힘을 제거해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이 있다는 Yuko Nishimura의 2006년 작품 'Organic'을 보면 접기와 구부러기의 기법을 함께 응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의 오브제를 만들어냈다



[그림 5] 구부러기 기법을 응용한 Yuko Nishimura 작품

5. 전통공예의 Fold구조

5-1. 전통주머니의 Fold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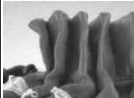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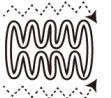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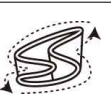
전통 주머니에서의 Fold구조는 입구를 접었다 구부렸다 반복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두루주머니형은 주머니의 옆선을 반대쪽 옆선을 향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접어 나간다.

귀주머니형은 대각선 방향으로 접은 상태에서 오른 쪽과 왼쪽을 3등분한 지점에서 접어 넣는다.

약낭형은 양쪽의 옆선을 같은 너비만큼 안으로 밀어서 접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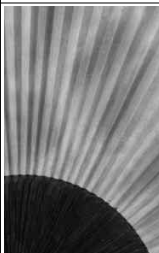
[표 6] Fold 구조별 분류

구조형	접기형태	결과물 형태
옆선을 중심으로 3,5,7,9,11씩 주름을 반복하여 접는다.		
귀주머니형은 앞 중심과 뒤중심을 사선으로 접어 3등분한 후 구부려 접어 넣는다.		
양주머니형 : 두껍기 있는 형태로 앞을 중심으로 양 옆선을 안으로 약간 구부려 넣는다.		

5-2. 전통공예의 Fold구조 비교

본 연구에서 고찰한 부채, 갈모, 주머니의 Fold구조를 비교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Fold 구조별 분류

전통공예품	Folding	결과물 형태
주머니		접기와 구부러기 기법의 연속성
갈모		접기와 구부러기 기법의 연속성
부채		접기와 구부러기 기법의 연속성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주머니의 형태가 완성되는 구조적 측면 즉, Fold기법과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한국 전통주머니와 같은 Fold기법을 활용한 전통공예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구성적인 방법으로 접었다 펼쳤다 하는 기능은 전통 주머니에서 뿐만 아니라 부채, 갈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Fold기법의 구현방법은 부채, 갈모, 주머니에서 한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접는 방향과 방법, 규칙적인 주름의 형태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전통분야에 국한되어 고찰한 것이며 유물의 실물조사를 하지 못하고 사진자료로 분석한 점이 아쉽다. 또한 다양한 고 문헌을 참고하지 못하고 시각적 연구 및 실증적 고찰에만 치중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발견한 것은 과거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현대 미학적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섬유공예인 전통주머니와 종이공예인 한지를 활용한 부채, 갈모에서 나타나는 folding 기법은 과거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현대 미학적 요소들

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결론이며 구체적인 현대 미학적 검증연구는 다음 논문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최범, 한국적 디자인 또는 복고주의 비판, 월간 디자인 200호, 1995
2.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 라이프니츠와 현대 2000
3. 우리옷과 장신구. 열화당
4. 양진숙, 조선시대관모사건, 華山文化, 2005
5. 금기숙, 주선 복식 미술, 서울 열화당, 1994
6. 송정은, 韓·日부채의 비교분석을 통한 무용예술의 형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6
- 권혜진, 한국전통 주머니의 조형미를 응용한 현대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7.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 라이프니츠와 현대
8. 최재영, 서양인이 본 조선末期 남성모자 강화도조약 체결에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1876~1910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2011
9. 김세환, 한국노래개의 조형적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44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11. e4u 영한사전, 시사